

오너리스크 피해로 매출 30% 급락

봉구스, 네네에 몰래 매각

봉구스 기맹점주들, 매각 반발
오늘 본사 관계자 만남 갖기로

주먹밥 프랜차이즈인 '봉구스 밥버거'가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 치킨'에 인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회는 이번 매각에 관해 전혀 공지가 없었다며 봉구스밥버거 본사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봉구스밥버거는 다양한 속재료를 넣은 밥버거를 개발한 오세린 대표가 지난 2009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 노점상을 시작해 가맹점을 한때 900여 개까지 늘렸다. 그러나 오 대표가 마약에 손을 대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알약환각제를 나눠주고 함께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필



/봉구스밥버거

로폰을 구입해 지인들과 호텔, 집에서 세차례 투약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일로 오 대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점주들은 오 대표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대학가 매장 매출이 30% 급락했다.

봉구스밥버거는 다양한 속재료를 넣은 밥버거를 개발한 오세린 대표가 지난 2009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분식 노점상을 시작해 가맹점을 한때 900여 개까지 늘렸다. 그러나 오 대표가 마약에 손을 대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알약환각제를 나눠주고 함께 투약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필

차이즈운영 경험과 전문 외식 기업으로써의 품질 안정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네네치킨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빠른 변화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가맹 사업 전개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봉구스밥버거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대표자 명의도 현철 호 네네치킨 대표로 수정됐다. 가맹점주협회는 4일 본사 관계자들을 만나 인수와 관련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하이마트 쇼핑몰서 '강마루' 판매

동화기업 업계 최초로 개시

동화기업은 하이마트쇼핑몰에서 업계 최초로 목질 바닥재인 강마루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하이마트쇼핑몰에 입점한 제품은 강마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나투스 진', '나투스 진 헤링본', '나투스 강', '나투스 강 헤링본' 총 4종이다.

동화자연마루 나투스 시리즈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낮은 SEO등급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아토피, 새집증후군 예방에 탁월하다. 마루 표면은 고강도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찍힘, 긁힘, 오염에 강하다. 내수성을 강화한



경우엔 10월까지 30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바닥재 시공 인증 SNS 이벤트도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시공 완료 후 포토 후기를 본인의 SN S 계정에 올리면 참여자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매달 우수 사례로 선정된 1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화력 높이고 화구 키운 전기레인지 출시

코웨이는 강력한 화력으로 조리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전기공사 필요 없이 플러그만 끊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웨이 전기레인지 하이퍼 하이라이트(이미지)'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코웨이 전기레인지 하이퍼 하이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화력을 갖춘 하이퍼 대화구이다.

빠르고 강력한 화력이 필요할 때 '터보모드'를 작동하면 2.7kW의 고출력으로 조리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이 제품은 하이퍼 대화구가 없는 자사 기존 제품 대비 약 56% 조리시간을 줄여준다.



또 독일 쇼트세란의 글라스 상판과 80년 전통의 E.G.O사 발열체를 사용해 품질과 안정성도 높였다.

일시불 판매가격은 109만원이다. 제품 문의는 코웨이 고객 센터나 코디를 통해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유한양행·한미약품·대웅제약·메디톡스·일동제약…

제약바이오, 일자리창출 선봉

하반기 2956명 채용 계획
개발·유통 등 일자리 다양

제약·바이오 업계가 하반기 인력채용경쟁에 나섰다. 제약사들이 채용 공고를 속속 공개하는데 이어 직접 원하는 인재를 찾으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어 눈에 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오는 14일 까지 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R&D(연구개발)와 임상, 생산, 영업 등 6개 부문 20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총 50여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인사팀 손용수 이사는 "매년 높은 매출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메디톡스와 함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싶은 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오는 17일 까지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채용의 모집 부문은 연구, 개발, 생산, 영업 등에서 110명 규모다.

유한양행 역시 오는 8일 까지 푸드앤헬스(food&health),

법무와 사무 분야에서 인재 채용을 진행 중이다. 유한양행은 새롭게 오픈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플래그십 스토어인 뉴오리진의 확장을 위해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한미약품 역시 영업과 재무개발, 연구센터 등 부문에서 하반기 세자릿수 규모의 인재 채용을 진행 중이다. GC녹십자도 재무와 영업, 임상, 연구개발 등 분야에서 하반기 공채 원서접수를 마무리하고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일동제약은 연구부문과 영업부문, 스텝부문에서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다. 현재 서류전형을 마무리하고 10월 중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약사 공채 모집에는 새로운 채용 기술들이 도입돼 눈길을 끈다.

대웅제약의 경우 해외 현지법

인에서 근무할 글로벌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섰다.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2018 KOTRA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참가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면접을 통해 미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8곳에 해외 현지법인에 맞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일동제약은 하반기 공채에 인공지능(AI) 온라인 면접을 도입했다. AI면접은 온라인에서 지원자의 목소리와 표정 등을 분석해 인재를 추천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지난 상반기 한미약품과 중외제약 역시 AI면접을 적용한 바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산업계가 2956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뿐 아니라 개발, 허가, 생산, 유통, 판매에 걸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의약 품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8.5명으로 3.6명 수준인 반도체의 2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lee@



우울증 정보제공 후 약처방 줄었다

항우울제 '노인주의' 의약품
DUR 시스템, 처방 영향 확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삼항화물 우울제(TCA) 관련 노인주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개발해 제공한 이후 TCA 처방이 14.2% 감소했다고 밝혔다.

3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주의 DUR 정보 제공 후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TCA 일평균 처방건수가 76.6건(75.5~77.6건)에서 65.7건(64.5~66.9건)으로 14.2% 감소했으며, 처방 감소 효과는 DUR 정보 제공 직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미트리프탈린 등과 같은 TCA는 노인에게 사용 시 기립성 저혈압, 비틀거림, 헙콜린작

용에 의한 배뇨곤란, 변비 등이 나타나기 쉬워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노인에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약물로 분류되어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연구는 DUR 시스템에서 알림 팝업창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현장의 주의를唤起시켜 처방 변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현대그린푸드 "온라인 식재료 매출 50% ↑"

최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검증된 식재료를 찾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더현대닷컴 내에서 운영 중인 '산지스토리관'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50.9%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산지스토리관'은 현대그린푸드가 전국 유명 산지에서 자란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발굴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솔인숍(shop in shop) 매장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더현대닷컴 산지스토리관에서 약 90여종의 유기농·무농약·저탄소 농산물과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벚꽃 등을 활용한 천연 비료만 사용하는 40년 전통의 '충주 흥옥 사과'나, 1평당 33마리 이하의 닭만을 키우고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천 올계 농장'의 유기농 닭 등이 대표 품목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정부 인증 제도 획득 외에도 농장 현지 답사를 통해 실제 작물 및 축산물 제배 실태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입점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상품의 진정성을 확인한 고객들이 비싸지만 믿을 만한 먹거리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며 매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이대목동병원

15일 관절염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층 대회의실에서 관절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류마티스학회와 함께 하는 이번 건강강좌는 '통증 없는 아침을 위한 관절 건강 바로 알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이지수 류마티스내과 교수(사진)가 '관절염 바로 알지'를 주제로 강연하며 △손가락이 아침마다 뻣뻣해요(정민경 류마티스내과 교수) 등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기념품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첫 솔 세트가 제공된다.

/이세경 기자